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5)

김 태 곤*

목 차

- I. 序言
- II. 語形 消滅型
- III. 語形 分化型
- IV. 語形 變化型
- V. 語形 維持型
- VI. 結論

I. 序言

이 논문은 前篇¹⁾에 이은 後續研究로 15세기에 쓰였던 국어 어휘가 그 이후에 어떻게 변천하였는가를 밝히는 데 목적이 있다. 단어의 변화하는 양상은 여러 가지인데, 語形이 변하는 것, 의미가 변하는 것, 語形과 의미 모두가 변하는 것 등이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겉으로 보아 알 수 있는 語形에 기준을 두어, ① 語形이 소멸된 것, ② 語形이 分化된 것, ③ 語形이 변화된 것, ④ 語形이 유지된 것으로 나누어 어떤 단어의 語形이나 의미의 변화과정을 옛날 문헌에 나타난 자료를 중심으로 살펴 본다.

이런 유형에 따른 단어를 선정하여 考究하였는데, 語形이 소멸된 것으로 ‘하야 브리다’를, 語形이 分化된 것으로 ‘버물다’를, 語形이 변화된 것으로 ‘여희다, 즉

* 제주대 교수

- 1) 金泰現(1994),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1)”, 『白鹿語文』 10, 제주대 국어교육학회
- (1995),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2)”, 『語文研究』 86, 한국어문교육연구회
- (1996),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3)”, 『白鹿語文』 12, 백록어문학회
- (1997),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4)”, 『白鹿語文』 14, 백록어문학회

白鹿語文 第15輯(1999. 2.)

ㄴ. 점다'를, 語形이 유지된 것으로 '이올다, 치다'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인용된 用例의 문헌과 그것의 略號는 다음과 같다(가나다 순).

〈警民〉	警民編(改刊本)	1658
〈敬釋〉	敬信錄諺釋	1796
〈關明〉	關聖帝君明聖經	1855
〈救簡〉	救急簡易方	1489
〈救方〉	救急方諺解	1466
〈救荒〉	救荒撮要	1554
〈國漢〉	國漢會語	1895
〈金三〉	金剛經三家解	1482
〈南宮〉	南宮桂籍	1876
〈內〉	內訓	1475
〈老諺〉	老乞大諺解	1670
〈楞〉	楞嚴經諺解	1462
〈東醫〉	東醫寶鑑 湯液編(活字本)	1613
〈痘要〉	諺解痘瘡集要	1608
〈杜重〉	分類杜工部詩諺解 重刊本	1632
〈杜初〉	分類杜工部詩諺解 初刊本	1481
〈馬諺〉	馬經抄集諺解	仁祖朝
〈蒙老〉	蒙語老乞大	1741
〈蒙補〉	蒙語類解補	1790
〈蒙解〉	蒙語類解	1768
〈朴新〉	朴通事新釋諺解	1765
〈朴諺〉	朴通事諺解	1677
〈方言〉	方言類釋	1778
〈餽老〉	餽譯老乞大	16세기초
〈餽朴〉	餽譯朴通事	16세기초
〈餽小〉	餽譯小學	1517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5)

〈法華〉	法華經諺解	1463
〈分瘟〉	分門瘟疫易解方	1542
〈三綱〉	三綱行實圖	1481
〈釋〉	釋譜詳節	1447
〈石千〉	石峰千字文	1583
〈宣小〉	小學諺解(宣祖版)	1587
〈續三〉	續三綱行實圖(重刊本)	17세기초
〈松江〉	松江歌辭	1747
〈新續〉	東國新續三綱行實圖	1617
〈十九〉	十九史略諺解	1772
〈女四〉	女四書諺解	1736
〈譯補〉	譯語類解補	1775
〈譯解〉	譯語類解	1690
〈伍倫〉	伍倫全備諺解	1721
〈倭解〉	倭語類解	18세기
〈圓〉	圓覺經諺解	1465
〈月釋〉	月印釋譜	1459
〈六祖〉	六祖法寶壇經諺解	中宗朝
〈恩重〉	恩重經(南高寺本)	1741
〈隣語〉	隣語大方	正祖朝
〈正俗〉	正俗諺解(奎章閣本)	17세기
〈正俗〉	正俗諺解(一蓑文庫本)	18세기말
〈種德〉	種德新編諺解	1758
〈重老〉	重刊老乞大諺解	1795
〈太上〉	太上感應篇圖說諺解	1852
〈訓蒙〉	訓蒙字會	1527

Ⅱ. 語形 消滅型

□ ㅎ야브리다

우선 이 말이 중세국어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었나 용례를 보자.

① 깨뜨리다

破는 ㅎ야브릴씨라(月釋 序6)

② 헐어버리다

모던 브르미 니러 집도 ㅎ야브리며 나모도 것거디며(釋23:22)

지블 ㅎ야브리고(破家)(內2:14)

③ 망가뜨리다

물읷 사르미 거슬 비리다가 ㅎ야브리며(凡借人物不可損壞)(魏小8:22)

④ 해지게 하다

내 두 쌍 새 뵈를 다가 다 든너 ㅎ야브리과라(把我的兩對新靴子都定破了)(魏朴 上 35)

⑤ 그르치게 하다

因ㅎ야 생을 ㅎ야브리느니(因以害生)(法華1:232)

⑥ 무찌르다, 擊破하다

큰 威光을 퍼샤 魔兵衆을 ㅎ야브리시고(月釋 序7)

⑦ (명예, 덕 등을) 毀損시키다

내 조상 명성을 ㅎ야브리디 말오(自己祖上的名聲休壞了)(魏老 下48)

일후를 ㅎ야브리며(壞名)(魏小6:17)

‘ㅎ야디다’가 피동이라면, ‘ㅎ야브리다’는 사동으로 兩者が 중세국어에서 활발히 쓰였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ㅎ야브리다’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語形이 16세기 초 문헌인 <魏朴>과 <魏小>에서는 ‘히야(여)브리다’로 표기

되어 나타난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당시에 이 말의 음운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 17세기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살펴 보자.

① 헐어버리다

水門을 다가 다 딜러 해야브리고(把水門都衝壞了)(朴諺 上10)

② 해지게 하다

내 두 쌍 새 휘를 다가 다 든너 해야브리게 하고(把我的兩對新靴子都定破了)(朴諺 上32)

免帖 내여 해야브리고(將出免帖來毀了)(老諺 上4)

③ 몸을 훼손시키다

비록 強暴한 사름이 이셔 내 몸을 터 히야브리며(雖有強暴之人毆傷我體)(警民 9)(改刊本)

코를 다가 구러더 해야브리니(把鼻子跌破了)(朴諺 下9)

某의 ㄴ출 주머괴로 터 하야브리되(於某面上用拳打破)(朴諺 下54)

간 곳마다 다른 사름을 해야브리며 내 몸을 자랑하고(到處裏破別人誇自己)(朴諺 上23)

이와 같이 17세기에는 語形이 대부분 '히야브리다' 또는 '해야브리다'로 굳어져 쓰이고 있다. '해야브리다'로의 표기는 '·' 음이 서서히 消失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첫음절에서의 '·' 음의 완전 消失時期를 18세기 중엽으로 보고 있다.²⁾ 그러나 의미는 중세국어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 말이 18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나고 있다.

① 해지어 버리다

도로혀 내 새 靴 조차 다 든너 해야브려다(倒累我的新靴子都走破了)(朴新1:35)

② 몸을 훼손시키다

이 瘡을 긁쳐 히야브리고(撓破了這瘡)(朴新3:12)

2) 李基文(1977), 『國語音韻史 研究』, 塔出版社, p.121.

코를 다가 구러져 하여브리니(把鼻子跌破了)(朴新3:13)

③ 망가뜨리다

놈의 것 히여브리지 말라(休壞了他的)(重老 上17)

④ (명예 등을) 훼손시키다

해야브려도 내 일흠을 해야브리니(壞是壞了我的名)(重老 下46)

이렇게 ‘해(히)야브리다’는 18세기까지만 쓰였고, 19세기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았다. 대신에 다음과 같이 다른 단어가 이 말을 대신하여 쓰이고 있다.

사람의 공을 문호지르게 하며(敗人功)(太上 大文解6)

사람의 기물을 모손하여(損人器)(太上 大文解6)

지금까지 살펴 본 이 ‘해야브리다’의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해야브리다(15세기) > 히야(여)브리다(16세기) > 해(히)야브리다(17~18세기)

Ⅲ. 語形分化型

□ 버물다

‘버물다’란 단어가 현대국어와는 달리 중세국어에서는 활발히 사용되었다. 먼저 ‘버물다’가 중세국어에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가를 살펴 보자.

① 엉키다

또 노히 버물가 저해라(又怕繩子紐着)(魏老 上38)

세와 界와 들히 서로 버므러(月釋17:56)

② 뒤덮다

네 저근 소남기 너추는 프리 수이 버므러쇼물(四小松蔓草易拘纏)(杜初6:37)

굿다운 프른 두들글 버므렛은 園圃오(芳菲緣岸圃)(杜初10:16)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5)

③ 두르다

ㄹㄹ물 버르렛는 길히 니그니(緣江路熟)(杜初7:1)
다붓과 사매 버므러시니(附蓬麻)(杜初8:67)

④ 띠다

衣冠흔 모매는 御爐엇 香내 버르렛도다(衣冠身惹御爐香)(杜初6:3)
히 龍이 비느레 버므니(日繞龍鱗)(杜初6:8)

⑤ 病이 몸에 들다

將次入 늘구매 病이 모매 버므러세라(將老病纏身)(杜初23:56)

⑥ 連累되다, 얹매이다

서르 버므러 주변 몰흐니(相緣不自由)(金三5:10)
더러운 이레 버므디 아니흐며(不涉穢濁)(內1:2)

이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단어 '버물다'가 다양한 의미로 쓰였는데 이에 대응되는 漢字는 紐着, 拘纏, 緣, 附, 惹, 繞, 涉 등이다. 이렇게 중세국어에서 다양한 의미로 쓰였던 '버물다'가 근대국어에 와서는 <杜詩諺解> 重刊本에서나 많이 쓰였을 뿐 다른 문헌에서는 별로 쓰이지 않고, 대신 '버물다'의 파생어인 '버므리다'가 많이 쓰이고 있다. 근대국어에 와서 '버물다'의 의미가 이른바 축소된 것이다.

17세기 국어에서 '버므리다'의 사용 실태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버무리다

그저 콩물을 다가 버므려 주고(只將料水拌與他)(老諺 上22)
콩 버므리다(拌料)(譯解 下34)

② 連累되다

온 집 사람이 버므리여 다 죽을 셔시니(帶累一家人都死也)(朴諺 中28)
그 사람의 집을 다가 조차 버므려(將那人家連累)(老諺 上45)

18. 19세기에는 단어 '버물다'와 '버무리다'가 모두 나타나는데 다음 용례와 같다.

〈버물다〉

① 連累되다

놈의 일에 버물다(竿誤)(蒙補29)

② 뒤섞다

버물다(物之調雜)(國漢 42면)

〈버무리다〉

① 뒤섞다

이 물이 버무린 여물음(蒙老2:18)

버무리다(攪混)(蒙解 上46)

버무리다(混合)(國漢 499면)

② 連累하다

네 보라 이러티시 人家를 버무리니(你看似這般帶累人家)(重老 上46)

이처럼 17세기에서 19세기에 걸쳐 단어 '버물다'와 '버무리다'가 '뒤섞다'와 '連累되다'의 의미로만 쓰인 것을 알 수 있고, 이 語形들이 위의 예에서 보듯 18세기에는 圓唇母音化되어 '버물다'와 '버무리다'로 표기되어 나타난다.

그런데 18세기에 '連累하다'란 漢字語가 쓰이기 시작하면서 '버물다'란 단어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 온다. 다음의 예를 보자.

이러므로 곳 저를 連累하여 구의를 犯하여(因此就連累他犯官司)(重老 上46)

날란 년누티 마르쇼셔(莫帶累我)(伍倫5:8)

文世榮 편 〈朝鮮語辭典〉(1938)에는

버무리다 : 여러 가지를 한 데 섞다.
 버물다 : 죄악에 관계하다.

등으로 풀이하고 있어 단어 '버무리다'에서는 '連累하다'의 의미가 떨어져 나갔고, 단어 '버물다'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현대국어에서는 18세기부터 쓰이기 시작한 별도의 漢字語 단어 '連累하다'가 자리를 잡아, 단어 '버물다'에는 그러한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現用 국어사전에 단어 '버물다'가 '連累되다'의 의미로 풀이하여 실려 있으나, 言衆들은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있다.³⁾

이 '버물다'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 본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버물다(엇키다, 뒤덮다, 두르다, 병이 들다, 連累되다)(15세기)
 > 버물다(뒤섞다, 連累되다)(17세기) > 버물다(뒤섞다, 連累되다)(18세기~1938) >
 連累하다(18세기~現)
 > 버무리다(뒤섞다, 連累하다)(17세기) > 버무리다(뒤섞다, 連累하다)(18세기) > 버
 무리다(뒤섞다)(現)

IV. 語形變化型

1. 여희다

15세기 국어의 단어 '여희다'는 현대국어에서는 '여의다'로 語形이 바뀌어 쓰이는데, 이 단어가 중세국어와 지금과는 많은 의미 차이가 있다. 이 말이 중세국어에서 나타나는 다음의 용례를 보자.

① 離別하다, 死別하다

어이 아득물 여희에 흐시느니(釋6:5)
 슬프다 사라서 여희요미여(嗚呼生別離)(杜初22:44)

3) 金亨奎(1965)는 단어 '버물다'에 대해 지금은 '混合'의 뜻만 있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國語史』, 白映社, p.308).

② 떠나다

명이 절하고 여희니라(明禮辭)(六祖 上39)
흐번 故園을 여희요매(一辭故園)(杜初15:20)
고지 디여 넷 가지롤 여희니(花落辭故枝)(杜初8:29)

③ 보내다

嵩陽에 호오사 누엿는 客이여 穎水入 보물 세 번 여희도다(獨臥嵩陽客三違穎水春)(杜初16:21)

④ 떨어지다

그 體 구드며 므거워 바리 싸홀 여희디 몸호니라(其體堅重足不離也)(楞6:97)
和는 셋거 곁히디 몸홀씨오 습은 브터 여희디 몸홀씨라(和者雜而不辯合則附而不離)(楞2:99)

⑤ 멀리하다

深山에 드러 佛道 스랑호리도 보며 또 貪欲을 여희여(釋13:20)
어린 眷屬을 여희오 어딘 사락덜 갖가비 호야(釋13:22)
허를 여희며 외음 그출시(離過絕非)(圓 序3)

⑥ 벗어나다. 免하다

이 큰 功德을 어더 三界入 受苦롤 여희에 호리라(釋23:7)
알럿 세 허를 여희니(免前三過)(圓 下三之 33)
涅槃을 듣즈복시고 煩惱를 여희시니(月釋21:2)

이와 같이 중세국어에 '여희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이별뿐만 아니라 장소를 떠나거나 계절을 보내거나 추상명사와 멀어지는 것 등 모든 것과의 '離'를 나타낼 때 쓰였다. 그리고 '여희다'가 漢字語와 대응할 때도 '離' 뿐만 아니라 '免別, 辭, 謝, 釋, 違, 超, 脫' 등의 漢字를 諺解할 때도 쓰였다.

'여희다'가 17세기에는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것이 나타난다. 이것은 중세국어와 대체로 차이가 없다고 본다.

① 離別하다. 死別하다

서르 여희여 훗터디자(相別散了)(老諺 下18)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5)

나히 날곰인 제 어미 여희고(年七歲喪母)(新續 孝4:60)

② 벗어나다

가난흔니는 그 가난놀 여희여(貧者可離其貧)(正俗24)(奎章閣本)

③ 떠나다

洛城을 혼 번 여희요니(洛城一別)(杜重2:1)

일의 놀이는 아히 내 무루플 여희디 아니하야(嬌兒不離膝)(杜重2:66)

18세기에는 '여희다'의 語形이 변화를 겪어 현대국어와 같이 '여의다'로도 쓰였다.

① 離別하다. 死別하다

주거 여희은 진실로 춤디 못호거니(死別誠難忍)(恩重10)(南高寺本)

어려서 부친을 여의매(敬釋26)

② 벗어나다

빈자는 가히 그 가난키를 여희여(貧者可離其貧)(正俗43)(一篋文庫本)

이와 같이 18세기 말의 문헌 <敬信錄諺釋>에 '여의다'가 표기되어 나타난다. 이것으로 보아 이 말의 語形의 변화를 알 수 있고, 의미도 현재와 같이 '死別'을 나타내는 말로 쓰였다.

이 말이 위의 예 ②에서 보듯 '벗어나다'의 의미로도 쓰였으나, 문헌 <正俗諺解>가 중세국어 때부터 내려오는 책이므로 의례적인 단어 선택일 것이다.

그리고 18세기에는 단어 '여희다' 대신 漢字語 '니별'(離別)을 쓰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우리 兄弟 | 孃을 니별호고 가늑이다(我兄弟別孃去)(伍倫4:28)

功名을 爲호여 北堂을 니별호니(爲功名別北堂)(伍倫4:31)

나히 팔십 이세에 친척을 니별홀시(年八十二別親戚)(種德 上20)

이제 부모로 더브러 니별홀디라(與父母訣)(種德 下9)

19세기에는

여이다(離別)(國漢 67면)

니 어려서 업친을 녀회고(余童年喪父)(太上2:48)

로 표기되어 나오는 바 '여이다'는 '여의다'의 誤記이고, '녀회다'는 '여회다'의 誤記이다. 이런 점으로 보아 이 말은 18세기와 다르지 않다고 보겠다.

20세기에는 다음과 같이 文世榮의 <朝鮮語辭典>(1938)에는 '여의다'와 '여회다'가 모두 실려 있으나, 現用 국어사전에는 '여의다'만이 실려 있다.

여의다 : '여회다'에 보라.

여회다 : 죽어 이별하다.(이상 '朝鮮語辭典')

여의다 : ① [주로 부모가] 죽어서 이별하다. ② [딸을] 시집 보내다.(새 우리말 큰사전)

이 말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 본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여회다(離別, 死別, 떠나다, 보내다, 떨어지다, 멀리하다, 벗어나다)(15세기)

> 여회다, 여의다(死別)(18세기) > 여의다(死別, 딸을 시집보내다)(現)

2. 조수

중세국어에서는 '조수'가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였다.

① 열매 속의 씨(核)

五果는 조수 잇는 果實과 술 잇는 果實과(月釋23:94)

복성황 조수 半 닛과(桃核半介)(救方 下73)

② 알이나 눈에서 색깔에 따라 구분되는 부분

돌굴 알 누른 조수과(鷄子黃)(分癩11)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5)

누른 즈수 만케 호야(敎簡6:5)

눈 즈이 감포르며(月釋2:41)

이 말이 17세기에는 '즈의' 또는 '즈이'로 語形이 나타나고, 의미도 다음과 같이, 알이나 눈에 있어 색깔에 따라 구분되는 부분의 뜻으로 쓰였다.

뉘의 알 흰 즈의(卵白)(東醫 湯液篇1:35)(活字本)

뉘의 알 누른 즈의(卵黃)(上同)

흰 예막이 거문 즈이롤 ㄱ리오느니(白膜遮睛)(痘要 下53)

이 말이 현대국어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로 쓰여 17세기와 변함이 없으나 語形이 다르다.

자위 : 눈알이나 또 새, 짐승 따위 알 속의 빛깔이 서로 구분된 부분(새 우리말 큰 사진)

지금까지 살펴 본 이 말의 변천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즈수(씨(核), 알이나 눈에서 색깔로 구분되는 부분)(15세기) > 즈의, 즈이(알이나 눈에서 색깔에 의해 구분되는 부분)(17세기) > 자위(17세기와 의미는 같음)(現)

3. 접다

중세국어의 語形 '접다'는 현대국어 '줍다'와는 의미의 차이가 있었다. 이 말이 중세국어에서는 다음 용례와 같이 '幼'의 의미와 '少'의 의미를 포함하여 쓰였다.

① 幼(어리다)

사르미 나히 호마 저머 아비 브리고 逃亡호야(人年既幼稚捨父逃逝)(法華2:182)

미상 주렛는 저문 아드론 ㄴ비치 서의호도다(恒肌稚子色淒涼)(杜初7:2)

저물 유 : 幼(訓蒙 上32)

저물 티 : 稚(上同)

② 少(젊다)

- 나히 저무매(年少)(杜初7:31)
- 아빈 점고아드론 늘거(父少而子老)(法華5:120)
- 점고 고복니로 여들 각시를 굴히샤(月釋8:91)
- 저를 쇼 : 少(石千35)

이 말이 17세기에서도 중세국어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서술어 '점다'가 나타내는 대상을 사람뿐만 아니라 나무에도 적용하여 썼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① 幼(어리다)

- 점어서 효경과 널너던을 날거(幼讀孝經烈女傳)(續三 烈7)(重刊本)
- 느릅 겁질을 늘근 남기나 저른 남기나 헤디 말고(榆皮不計老嫩)(救荒7)

② 少(젊다)

- 나도 점닷다(年紀也小裡)(朴諺 下41)
- 어벗비 점어서 홀업이 된 줄을 어벗비 너겨(父母憐其少寡)(續三 烈10)(重刊本)

18세기에는 語形이 '젊다'로 변하여 쓰이기 시작하여 현대국어와 같게 되었다. 그리고 의미도 현대국어 '젊다'와 마찬가지로 '年少'의 뜻만을 가리키게 되었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 절문 계집이 일즉 寡婦되거나 호여셔(隣語1:18)
- 저른 선비들이 어즈러이 말호여(新學性亂)(伍倫2:15)
- 절문이(年青者)(譯補19)

19세기에도 18세기에 이어 이런 현상은 계속된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 절문 사나회와 절문 녀인을(少男與少女)(關明13)
- 절문 츠식을 떠냐면(離了青年子媿)(南宮4)
- 절머셔 산중에 들어 공부호더니(壯年習業山中)(太上1:21)
- 점다(少年)(國漢 278면)
- 점따(少年, 弱年, 芳年, 青春)(國漢 622면)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5)

위의 예에서 〈國漢會語〉의 '점따'를 보면 '젊다'처럼 형태소를 밝혀 적지 않고, 소리나는 대로 적은 것을 볼 수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도 '젊다'를 [점따]로 발음하고 있다.

20세기에 이 말에 대해 의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젊다 : ① 나이가 많지 않다. 나이가 적다. ② 혈기가 왕성하다.

〈文世榮 편, 朝鮮語辭典〉

젊다 : ① [장성한 사람의] 나이가 적다. ② 혈기가 매우 성하다.

〈새 우리말 큰사전〉

이 말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 본 변천 과정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점다(幼, 年少)(15세기) > 젊다(年少)(18세기) > 젊다(年少)(19세기 말)

V. 語形 維持型

1. 이올다

이 말은 중세국어에서 지금보다 더 다양한 의미로 활발히 쓰였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① (식물이) 시들다, 마르다

남기 즉자히 이올어늘(釋24:41)

이운 남기 고지 나아사(枯木生花)(金三2:71)

②憔悴하다, 여위다

이 사르문 홀올로 이우럿도다(斯人獨憔悴)(杜初11:52)

③(臟器 등이) 萎縮되다

肝肺 | 이우러 오란 사호매 다드랫느니(肺萎屬久戰)(杜初25:6)

肝腦 | 이우러 다오며(肝腦枯竭)(楞9:117)

이와 같이 중세국어에서 語形 '이울다'는 식물이 시드는 것은 물론이고, '동물이 여위다. 臟器 등이 위축되다.' 등 이 말의 적용 대상이 상당히 넓었다.

이 말이 17세기에는 '시들다, 여위다' 의미 이외에 '榮華'와 반대 의미로 쓰이기도 했다. 아래 예 ③을 보자.

① 물기를 잃어 생기가 없어지다.

흠기 마르면 남기 이우느니(土燒燥則木枯槁)(正俗18)(奎章閣本)
말이 굵이 이우러(馬枯死蹄甲)(馬諺 下112)

② 憔悴하다. 여위다

이 사르문 홀로 이우릿도다(斯人獨憔悴)(杜重11:52)
向하야 가논디 顏色이 이우릿도다(所向色枯槁)(杜重19:33)

③ 氣勢가 衰하다.

榮華홀과 이우로미 咫尺 사이에 다르니(榮枯咫尺異)(杜重2:36)

18세기에는 다음 예와 같이 '식물이 시들다'의 의미로만 쓰인 것이 나타난다.

陰崖에 이온 풀을(松江 上4)
썩남기 이우러 죽고(桑枯死)(十九1:34)
남기 이우러 말오며(木枯槁)(正俗31)(一窠文庫本)
이울 조 : 凋(倭解 下30)

19세기에도 18세기와 같이 '식물이 시들다'의 의미로 쓰인 것만 나타난다.

그 꽃치 문득 이우러져 말오고(花即凋萎)(太上3:3)

그러나, 이 말이 현대국어 사전에서 '식물이 시들다' 이외에 '쇠약하여지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는 것을 볼 때, 18,9세기에도 그러했을 것으로 보인다.

國語 語彙의 變遷研究(5)

이올다 : ① 꽃·잎사귀 등이 시들다. ② 느슨하여지다. ③ 쇠약하게 되다.

〈文世策 편, 朝鮮語辭典〉

이올다 : ①(꽃이나 잎이)시들다. ② 차차 쇠약하여지다.<새 우리말 큰사전〉

‘이올다’에 대해 지금까지 살펴 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이올다(식물이 시들다, 憔悴하다, 臟器 등이 萎縮되다)(15세기) > 이올다(시들다, 마르다, 憔悴하다, 기세가 衰하다)(17세기) > 이올다(식물이 시들다, 쇠약하여지다)(現)

2. 치다

중세국어에서는 동사 ‘치다’의 대상이 ‘동물 따위를 기르는 것’은 물론 ‘奉養하다’ 또는 ‘育成하다, 修養하다’의 의미까지 나타내어 범위가 현대국어의 그것보다 넓었다. 다음의 용례를 보자.

① 養畜하다

畜生은 사르미 지비셔 치는 증식이라(月釋1:46)

치는 가히 일백이 나오디(有畜犬百餘)(鶴小9:107)

② 奉養하다

늑미 어미를 치다가(三綱 孝5)

사름의 늑근 어미를 치다가(夫養人老母)(鶴小9:57)

③ 育成하다, 修養하다

居士는 물근 節介를 네브터 치고(居士清節養素)(法華7:77)

검박함으로써 德을 칠더니(儉以養德)(宣小5:16)

다음 17세기 국어에서는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 본다.

① 養畜하다

두 아들을 ㄱ르치며 치더니(教育 二子)(新續 烈8:57)

② 奉養하다

식어미 치기롤 지극히 효도호더니(養姑至孝)(新續 烈6:14)
치기롤 위하야 녹벼슬을 호야(爲養祿仕)(新續 孝1:63)

위의 예에서 보듯 '치다'가 17세기에는 중세국어와는 달리 '育成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은 발견되지 않고, '養畜하다'의 의미와 '봉양하다'의 의미로 쓰인 것만 나타난다. 그래서 이 말이 나타내는 의미의 범위가 축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말이 18세기에는 17세기와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奉養'뿐만 아니라 '養育'의 의미로도 쓰였다. '奉養'은 부모나 조부모를 받들어 모시는 것을 뜻하는 것에 비하여 '養育'은 扶養하여 기르는 것을 뜻한다. 이런 의미는 다음 용례 ③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세국어 이래로 쓰였을 것으로 추측이 된다.

① 養畜하다

누에 치다(養蠶)(方言3:22)

② 奉養하다

힘써 그 식업이롤 五十年을 치고(力養其姑五十年)(女四4:19)

③ 養育하다

젓 머겨 치는 은이라(乳哺養育恩)(恩重9)(南高寺本)
더 百姓 치기롤(養那百姓)(伍倫4:30)
쳐즈롤 치려 호니(養妻子)(種德 下23)

19세기에는 '치다'가 사람을 '奉養하다'나 '養育하다'를 나타내는 의미에는 쓰이지 않고, 현대국어에서와 같이 '養畜하다'의 의미로만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 말은 의미가 더욱 縮小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신 사람을 대상으로 '기름'〔養〕을 표현할 때는 현대국어와 같이 다음처럼 漢字語 '奉養'이나 '供養' 등을 썼다.

키여 도라와 봉양호고(持歸奉)(太上1:3)
어미를 공양호시(養母)(太上4:25)

이상 '치다'에 대하여 살펴 본 바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치다(養畜, 奉養, 養育, 育成)(15세기) >

치다(養畜, 奉養, 養育)(17세기) > 치다(養畜)(19세기)

VI. 結 論

이상과 같이 어휘 변천을 ① 語形이 소멸된 것(햐브리다), ② 語形이 분화된 것(버물다), ③ 語形이 변화된 것(여희다, 점다), ④ 語形이 유지된 것(이올다, 치다) 등으로 나누어 이들 단어의 語形이나 의미의 변천과정을 문헌을 근거로 하여 시기별로 고찰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햐브리다(語形 消滅型)

중세국어에 '햐브리다'는 서로 관련 있는 단어인 '햐브리다'와 함께 활발히 쓰였다. 중세국어에서 이 말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는 '깨뜨리다, 헐어버리다, 망가뜨리다, 해지게 하다, 그르치게 하다, 무찌르다, (명예 등을) 毀損시키다' 등이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18세기까지만 쓰이고 사라졌다.

햐브리다(15세기) > 햐(여)브리다(16세기) > 해(히)햐브리다(17~18세기)

(2) 버물다(語形 分化型)

단어 '버물다'는 매우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그러다가 17세기에 '버물다'의 파생어 '버무리다'가 쓰이면서 이들은 분화되었다. 후에 '버물다'는 '連累하다'의 의미를 맡게 되고, '버무리다'는 '混合하다'의 뜻을 맡게 되었다. 현재는 語形 '버물다'는 잘 쓰이지 않고, 대신 한자어 '連累하다'가 많이 쓰이고 있다.

버물다(엇키다, 뒤뚱다, 두르다, 병이 들다, 連累되다)(15세기) > 버물다(뒤섞다, 連累되다)(17세기) > 버물다(뒤섞다, 連累되다)(18세기~1938) > 連累하다(18세기~現) > 버무리다(뒤섞다, 連累하다)(17세기) > 버무리다(뒤섞다, 連累하다)(18세기) > 버무리다(뒤섞다)(現)

(3) 여희다(語形 變化型)

이 말 역시 중세국어에 다양한 의미로 쓰였다. 그러다가 후대로 오면서 의미도 축소되고 語形도 '여의다'로 변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희다(離別, 死別, 떠나다, 보내다, 떨어지다, 멀리하다, 벗어나다)(15세기) > 여희다, 여의다(死別)(18세기) > 여의다(死別, 딸을 시집보내다)(現)

(4) 즈스(語形 變化型)

즈스(씨(核), 알이나 눈에서 색깔로 구분되는 부분)(15세기) > 즈의, 즈이(알이나 눈에서 색깔에 의해 구분되는 부분)(17세기) > 자위(17세기와 의미는 같음)(現)

(5) 점다(語形 變化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 '幼'와 '年少'의 의미를 보유하고 있어 사용 범위가 현재보다 넓었다.

점다(幼, 年少)(15세기) > 젊다(年少)(18세기) > 젊다(年少)(19세기 말)

(6) 이울다(語形 維持型)

이 말은 중세국어에 현재보다 활발히 쓰이고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이울다(식물이 시들다,憔悴하다,臟器 등이 萎縮되다)(15세기) > 이울다(시들다, 마르다,憔悴하다, 기세가 衰하다)(17세기) > 이울다(식물이 시들다, 쇠약하여지다)(現)

(7) 치다(語形 維持型)

중세국어에 이 말의 사용 대상은 가축뿐만 아니라, 부모, 자녀, 德 등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현재는 가축에 한정하여 쓰이고 있다.

치다(養畜, 奉養, 養育, 育成)(15세기) > 치다(養畜, 奉養, 養育)(17세기) > 치다(養畜)(19세기)